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 3:4)

발행처: 만민이웃교회 충현교회 사서실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진근

예수님 명령에 우리가 앞장섭니다! 4-5월은 교회학교 새 친구 초청잔치의 달

오늘은 유아부 · 소년부 · 중등1부 · 고등부에서



초점전도잔치

매년 4월말에서 5월말까지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새 친구 초청잔치가 열린다. 초청잔치를 위한 준비는 부서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친구들을 대상으로 태신자 카드 작성하기, 학교알 전도하기, 교회다니지 않는 가까운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권면하기, 그리고 교사들의 정기적인 중보기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부서에 따라서는 태신자들에게 일일이 편지나 엽서를 보내고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열심을 내기도 한다.

복음은 전해본 사람이 전한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쁨은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하고 단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학생들에게 전도의 열심을 불리임이키게 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천국인문으로 힘있게 자라나게 된다.

오늘 유아부와 소년부, 중등1부와 고등부에서는 장기결석생들을 권면하여 모으고, 새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사랑의 잔치를 벌이는 행사들을 준비했다. 이 잔치들이 각 부서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자녀보내기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소망부는 5월 9일에, 유년부는 5월 30일에 각각 초청잔치를 가질 예정이다.

경찰전도회

5월 1일은 영성훈련
5월 11일은 전도집회

전도위원회 소속 경찰전도회는 5월 1일(토) 춘천에 소재한 중도에서 상반기 영성훈련을 갖는다. 경찰전도회는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서 모든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고 십자가 정병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5월 11일(화)에는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전도집회를 갖게 된다. 전·외경 3원2백여명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이번 집회를 위해서 경찰전도회에서는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99 제2차 학습세례식
대상자 총 154명

오늘 찬양예배에서는 99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이 거행된다(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에 갈릴리움에서).

지난 4월 11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기본교육을 받은 154명의 성도들 중 학습대상자는 49명, 세례 36명, 입교 26명, 개종 7명, 그리고 유아세례 대상자는 36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 중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일생 단 한번의 기회를 앞에 두고 훈련의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와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주일

제3차 성찬식
1-5부예배시에

다음 주일(5월 2일)은 99년도 제3차 성찬식이 거행되는 날이다.

성도들(세례 및 입교 교인)은 금번 성찬식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오늘 주간충현 3면 다음주일 설교 참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와 성결한 삶으로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학부 하나되기

5월 5일, 개포고교에서

대학부는 5월 5일(어린이날) 개포고등학교 교정에서 장기결석 지체들을 초청하고 모든 교사와 대학부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새우기 시간을 갖는다. 대학부 개원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번 행사를 통해 대학부 공동체 전체가 겸손한 들뜸과 뜨거움 사랑으로 하나되는 온유에 임하시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99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 모집

오늘 마감입니다!

케냐와 몽골, 파키스탄 선교 사업에 동참할 '99 여름 단기선교에 지원할 젊은이들은 4월 25일(오늘)까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다음주일은 어린이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1교육위원회의에서는 어린이주일로 지키는 다음 주일(5월 2일)에 영아 · 유아 ·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축복을 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년부에서는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줄 예정이다. 그리고 유치부에서는 5월 7일 금요집회 특별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5월 9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유치부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드린 선물을 준비하고 어린 손으로 손수 감사의 꽃을 만드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영아부에서는 아버지 초청행사를, 유년부와 중등3부 등에서는 부모님께 편지쓰기

를, 그리고 중등2부에서는 학부모초청 감사예배 및 자녀 신앙을 위한 좌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5월의 주요행사		
5/2	제3차 성찬식, 어린이주일	
5/9	어버이주일	
5/12	전도훈련원 99-2기 개강	
5/23	성령강림주일	
5/30	제20기 찬양대원양성부 종강	
5월 중	군목후보생 교육, 교정전도회 교도소집회, 군전도회 진중세례식, 경찰전도회 영성훈련 및 전도집회, 외선부 영성훈련, 직원수련회	

◆ 조금만 더...

학습세례식 경건한 기도로 동참해야

교회는 매년 6회에 걸쳐 학습세례식을 갖는다. 학습세례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거룩한 행사는 일생동안 단 한번만 경험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순간이다. 그러나 앞과 여러 중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받는 이 순간 어떤 이들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눈물에 젖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때 대다수의 성도들은 감사와 중보의 기도로 이 의식에 함께 참여한다. 하지만 개종주는 학습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 잠잠하게 하

나 주보를 뒤척이는 이들이 종종 있어 안내원들의 마음을 아픔케 한다. 그러고 담담한 표정으로 세례식 장면을 구경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 도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기도로 학습세례식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학습세례식이 끝나면 뿔뿔히 흩어 배담을 빠져나가기보다는 진절헌 웃음과 사랑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김창임 목사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 41:8-20)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아얌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는 민족들은 동방의 의인에게 놀라고 굴복하겠으나 선민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과 모욕을 당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르러온 음성과 깊은 애정으로 위로하십니다.

1. 택하여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1) 새 가지 이름으로 부르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아얌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8절)
첫째,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승자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나의 택한 아얌’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아얌’이란 이름은 거짓말쟁이요 도둑놈이요 약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는데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요 도둑이요 죄악의 때가 묻은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셋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 친구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한심하고 못났지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내가 불러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2)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리에서 부르시며 위로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고 변두리로 밀려난 처지에서 불렀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방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범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패하여 부르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인하여 주신다는 더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2. 원수가 강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1)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10절)
이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손”이란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는 신실한 손을 뜻합니다. 권능의 손, 공의로운 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한 마리의 늑은 지렁이와 같고, 바로 왕은 천하를 내려다보고 호령하는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세를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를 누가 감히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잡내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라고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면 승리를 하는데 원수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대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아얌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와 줄 것이니 네 속자는 이스라엘의 기복한 사바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거 같게 할 것이라”(14, 15절)

이는 ‘너희는 지렁이 같고 원수는 태산과 같다. 지렁이 같은 너희가 혼자서 태산 같은 원수와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느냐’ 태산에서 뿜어나온 굴러 내리듯 와도 지렁이는 형편없게 죽을 것이다. 너희가 지렁이라면 원수는 태산과 같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어 주면 지렁이에 어금기가 나옴새 새 타작기

같은 이빨이 나와서 마침내 태산을 부셔뜨려서 태풍 앞에 거처럼 날려 버리듯 승리를 주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태산 앞에 지렁이 한 마리가 땅에 꿇겨져서 꿈틀거리며 죽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태산과 같은 애굽의 세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원수를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고 이후에 보면 원수가 있던 자리는 자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혔던 원수를 찾아 보아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지와 옥을 달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허튼 것같이 되리라”(11, 12절)

하나님만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의 생명을 사방한듯이 충성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3. 가련하고 가난하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17절)

앞에서는 밤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으나 여기에서는 한으로 가련하고 빈핍하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련하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권세도 군대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기에 가련합니다. ‘빈핍한 자’란 말은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자사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만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

이며”(18절)

‘자사’란 풀 한 포기도 없는 메마른 바위산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자사에서 샘이 하나 터져도 기적적인 강이 흘러 내립니다. 이런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게다가 너희는 사막에 산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사에 강이 흐르는 기적을 주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모두 준비하셨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 나무를 키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와 손을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기복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20절)

자사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못이 생겨서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뻗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우연이나 자재의 소산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두루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밖에 있는 원수가 태산과 같고 너는 한 마리의 지렁이 같으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마. 너희가 가련하고 궁핍하고 사막에 있는 것 같으니,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주마.’ 밤의 원수를 이기게 하고 인간의 모자라는 것들을 다 채워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고 부족하겠습니까. 자살과 갈고 광야와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생물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골짜기와 사막에 온갖 나무들로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만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김 성 관 목사

주님의 성찬 (누가복음 22:19-20)

“또 떡을 가져 사래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 떡 먹은 후에 잔도 이와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을 맞는 감사와 기쁨

우리는 지난 1월 첫 주일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일에 이어 5월 첫주일이 오늘 우리는 세번째 성만찬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의 년달이 벌써 영원한 과거에 묻힌 것을 보니 시간은 참으로 살갑이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수많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절망의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곤경과 어려움을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에, 우리 한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경험케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외에 우리와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우리와 주님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거룩한 교통의 자리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입재

망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비통함과 고통은 저어주고 부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벗어놓아 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어두움은 어떻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성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피만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는 자리

따라서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죄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그리고 경건한 심령으로 마음을 조아리고 서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슬픔과 용서로 인한 사랑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경향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시가 면류관을 더욱 풍성하게 한 의미를 아십니까? 부어진 떡과 부어진 잔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맛보지만, 그 슬픔 속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 곧 용서의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는 자들이 그 앞에서 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 곧 하나님 이신 구원자를 통해서 그 날까지 매일 새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 매일 새롭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대속의 은총과 그 사랑의 의미를 점점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자리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일체 안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시나이다(26:27).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엮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이 하나 된 모든 세상을 이겨낼 만큼 강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서는 믿음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힘을 얻고 성화되어 갑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특권

주님의 성찬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한 단순한 식사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제 마음 속에서 타오릅니다. 이 기쁨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요 14:2).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며, 이것을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념해야 할 거룩한 의식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의 은총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통의 자리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자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맛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

하십니다. 그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 성찬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맛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힘과 기쁨을 주는 자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중심재료인 떡과 포도주가 바로 이 힘과 기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의 식탁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그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으로 인해 설레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를 대면하여 보게 될 그 축복의 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화목과 치유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희생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부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는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권태로움과 고생, 힘겨운 의로움 등으로

주님의 성찬은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한 식사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힘,

그리고 그를 아는 기쁨을 맛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특히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이 식탁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위하여 붓는 것이라.”(19:20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 아닙니까? 어,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자리

주님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는 우리 각자를 위한 대속을 이루십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구제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희생이 바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배어있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그를 사랑하

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힘, 그리고 그를 아는 기쁨을 맛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 특히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이 식탁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의 은총은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특권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만이 그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아멘. ■

세계 선교

평신도선교사 배출의 산실 선교연구원

4월 16, 17일 기도원에서 1박 수련회

선교연구원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총회 단기 평신도선교사 인준자격을 주며, MTT 선교학점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혜를 얻는 LMTC(평신도선교사 훈련과정: Layman Missionary Training Course)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우리 교회 외에도 9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은 자임을 자각하게 하여 성도들을 평신도선교사로 동원하고, 헌신된 선교지침자를 훈련시키는 특별한 과정인 것이다.

배다나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5시간 동안 본 교회 성도들 외에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타교회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평신도선교사로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두루 볼 수가 있다. 현재 5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영성훈련을 하고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이론강의를 하고, 그 후에 언어훈련이 있다. 특히 우리 교회의 LMTC과정은 국내외국인선교 및 단기선교를 위하여 영어 외에도 힌디어, 통골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의 언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과정은 3학기제로 되어 있으며, 매 학기마다 그리스의 군사로 무장되기 위하여 일박 수련회를 2회 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금)~17일(토)까지 충경기도원에서 1박 수련회를 가졌다. 60여명이 참석하여 회개수고문을 성경과 말씀으로 시간을 드리고, 1시간이 넘는 필독록 점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깊은 회개의 눈물과 다시 한번 선교를 향한 마음



으로 확인하면서 각자 장래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제 선교연구원은 명실공히 충경교회의 평신도선교사가 되는 자의 필수 훈련코스 자리를 굳히고 있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신다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모든 충경의 성도들이 타교인도 와서 훈련하는 이 훈련에 더 많은 참여가 요청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장 큰 일로 여기는 충경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들, 나가는 선교사들은 이런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수리남 답사팀 무사히 귀국

지난 4월 14일(수)에 수리남을 향했던 답사팀이 23일(금) 도착했습니다. 그 동안 수리남 답사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위원회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헌금, 알고 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헌신적으로 헌금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불신자 혹은 초신자들 중에는 '요즘 교회들은 돈이아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평평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돈이아기 때문에 시험들을 사기 교회에 안가자고도 다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현대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어떤 거의 헌금이아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헌금주머니나 헌금바구니를 들리는 일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서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비치해 놓고 자물쇠로 잠금하고 자물쇠를 열어 헌금을 드리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평하는 입술도, 불평을 입막으려하는 교회들의 제 한계는 대항도 사실은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 문제는 헌금이아기를 얼마나 하는지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나 그에 대항하는 교회가 과연 헌금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데 있다. 사실, 교회는 헌금이아기를 적절한 만큼 해야 하고 가려야 한다. 우리들 사모님과 있는 자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헌신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금은 교회에 바치는 기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

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생색 내는 헌금,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내 할 때는 다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헌금,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보일까와 겨우 형식만 채우는 헌금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물은 아벨 그 자신과 함께 드려진 예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행제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어 할 것을 간절적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들이 헌금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도들은 단지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돈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신다. 성도들은 단지 헌금을 통하여 내 생명을 불드신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분량이 실행되지 것이다. 따라서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믿음의 행위가 된다.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
본당 토요청소 봉사팀

우리 교회에는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다. 선교자, 찬양대, 기도자, 안내위원, 헌금위원, 헌금계수하는 분들과 같이 드러나게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음영과 조명을 관리하고, 헌금봉투를 정리하며, 예배실을 청소하는 일 등을 뒤에서 소리 없이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루어져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중 본당 예배실 청소는 교회 근처 교구의 여전도회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물론 교회에는 미화부 직원들이 있지만 하지만 몇 명 안되는 이들이 예배실의 주석구역을 청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 도회에서 4-6명씩 나와서 교구별로 정해진 구역의 의자와 분들을 닦는 일을 돕는다.

이 일은 89년경 지금의 3교구 여전도회원들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회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여년간 긴 세월을 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확산되어 교회 근처의 여러 교구가 이 일에 동참하는 심지일만한 아름다운 일로 발전되었다. 토요 본당 청소에 참여하는 이들은 교구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지만 이 일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차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간에 그 일을

하다보면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와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할 뿐이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게다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신들의 작은 봉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좀더 깨끗한 분위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봉사하는 심정의 도를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어 그 또한 감사하다고 한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소홀히 여기고 쉽게 나서서 하기 어려운 일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성전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토요 본당청소봉사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이종화)



{ Without God we can not, without us God will not. }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길 찬(청년1부)

서부 경남의 두메 산골에 위치한 거창고등학교는 최근에 '자유학교' 혹은 '대한교육의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교문과 담장이 없으며, 눈이 오면 전교생이 토끼 뿔이 사냥을 하고, 2막 3일 일정으로 캠퍼스 소풍을 하며, 유명인사 초청 강의 시간이 있고, 1년 3차례 정도의 노동교육이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의 학교일에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제학 중이던 그 시절에는 임시 지옥이라는 획일적 교육환경 속에서 전인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던 모습과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적 저항정신을 함양시키던 것이 거창고등학교의 참 모습이었다. 선생님들에게는 보람된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으로 오셔서 후학들에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독교 신앙에 걸어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빛과 소금'이라는 학교 교훈이었으며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고등학교 3학년 봄 재충시간에 있었다. "Without God we can not, without us God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전 교생이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며 외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에는 이 말의 깊은 뜻을 모르고 단지 멋진 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말의 속뜻을 알아가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분명하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인격적인 창조주 앞에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복음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에 우리를 이 강히 무엇인가를 하였다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고백에만 머무른다면 이 또한 심각한 오류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하인 사자들을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순종하는 도구로 역사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정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았는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의 삶과 사역을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셨으며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리셨다.

이상과 같이 거창고등학교는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그분의 역사, 신하인 토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말과 행동과 삶으로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

- 사랑하는 형을 위한 기도 -

정 성 수(청년2부)

피테의 파우스트는 이 세상 모든 학문을 공부한 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독배를 잡는다. 그러나 그 독배를 들라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부활의 새벽을 기뻐하는 찬송소리를 듣고 삶에 대한 의식이 다시 일깨워져 잔을 내려 놓는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들려온 그 부활의 노래가 내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자에게 소망과 구원, 생명이 주어졌던 것이다.

나예겐, 다른 사람을 위해 서순 보충으로 인해 가장 과단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도와솔 사람은 없고 조여오는 압박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밀집 전에도 울면서 피로워하는 형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조카의 모습도. 오늘 밤에도 어디서 어떻게 밤을 지내는지 알지 못했다. 마음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를 일이다. 울면서 피로워하는 형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나도 괴롭기 그지 없다. 도와 주고 싶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듯 외치며 땀이다.

이 사실을 아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더 아플 것이다. 형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 내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것일까? 지금 저처럼 새롭게 만드시려는 것일까?

피로워하며 무슨 일을 할지 모를 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압박에 둘러싸인 형예겐, 파멸을 앞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까지 경험하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의 소망을 형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형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고 다시 일하시는 부활의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 일본 교회를 떠올린다 }

홍 혜 선(청년2부)

나의 일본 유학 시절, 서 작은 교회를 찾는 일부터였다. 교회에 거의 없었던 뿐만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 이상한 교회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날 수업이 끝난 후 반 친구인 터키인 아킬라와 함께 기노쿠 나이라는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어느 상냥해 보이는 일본 아줌마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인이라 대답했다. 그러자 그 아줌마는 무척 반가워하며 대뜸 교회는 좋겠냐고 하는 것이다.

한국인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했다. 나는 마침 교회를 찾지 못해 곤란했던 터라 그 아줌마가 안내해 주는 교회로 아킬라와 같이 가보았다. 그러나 멀쩡한 교회 건물과는 달리 들어서자마자 여자 목사님과 스텝들이 나오더니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 같은 것을 외우더니 결국은 거의 강제로 마당의 연못 같은 곳에 이끌려 풍덩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 도망치고자 겨우 빠져나왔지만 화날 뉘도 없이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듯 즐겁게 웃고 있는 아킬라를 보며 웃었다. 웃어보았다. 내가 아는 한 사이비였다.

그후 나는 일본의 교회가 무서워한 동안 찾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의 조언으로 YMCA를 통해 나의 집이 있던 사이마틴 시가라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 교회는 전통적인 일본의 2층집. 겨우 지붕을 조그마한 용출선에 의지를 옮기듯기 높이 놓고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목사님의 딱지는 식탁, 신자는 일본 내내 열병 낫지, 그리고 마쓰와 신정 때 18명, 예배 끝나면 딱자로 쓰던 식탁을 옮겨 놓고 바로 열 부엌에서 간단히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런 교회를, 귀국하기 전까지 다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신학과 그 회생정신, 정말 목사님(?) 같다고 느꼈다. 또 그 10명 남짓한 신자들의 신앙심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크리스천이 차별을 받던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한다면 더욱더 그들의 신앙은 믿을 발하는 것 같아 하겠다. 단지 아쉬운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약하다는 것, 자식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도 힘이 부치는 것 보다.

아무튼 나의 5년이라는 유학생활을 통해 본 일본 교회의 교회, 크리스천, 신앙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속에 서 마음껏 믿고 따르고 주인의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신생활은 민족인지 세상 느낄 수 있다. 나는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대한 악조건 속에서도 곳곳이 신앙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의 일본 크리스천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낸다.

병원 정도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기쁨

정 희 경(청년1부)

"할렐루야, 어디서 오셨어요?"

"예, 중원교회에서요."

"중원교회요?"

"혹시 기도도에 기도원이 있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곳 기도원 공사때 재가 있었어요."

"이! 정말이세요? 그런데 어디다 편하면서 입원하셨어요?"

"예, 저... 바깥방이요."

그때 이분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전도팀에게 강하게 작용하여 4영리를 하고나서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드디어 다음주에 그 아저씨를 만나는 날.

"아저씨, 성경책 읽어 보셨어요?"

"예,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디 읽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이요."

성경을 처음 접하는 아저씨께서 어디가 처음인지 모르셨던 것입니다.

"아저씨, 성경책의 처음은 창세기부터 인데요?"

"그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주에 다시 만났을 때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명기까지... 제가 아저씨를 보고 느낀 것 세 가지: 장간동안 4영리를 전했는데 영접하는 놀라움과 성경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간동안의 하나님을 위한 일(기도)된 것은 일을 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백 명 자(집사, 1교구)

본 반대에 오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이 났다. 회생이 없이는 새 생명의 탄생을 있을 수 없는가 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막바지 진혼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가 열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으로 그가 삼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정결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색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혔도" (사 53:5)

분반대기실은 온통 산모들의 해산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 소리뿐이다. 그 중에 서도 세상 사람들 올면서 업 들을 붙었다. 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주님의 은혜였다.

늦은막에 예기치 않게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도 주셨지만, 분반대기실 10개월 동안 한 생명의 입태와 분만을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하셨다. 입덧으로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셨고, 입덧도 결국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하

나님의 세심한 배려임을 깨닫고 입덧까지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덧이라는 고통과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처리야 하는 회생을 통해 태아에 대한 애착심이 더욱 강해졌으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전도대상자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우리의 무관심으로 놓쳐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입덧에서부터 분만까지 임파의 육신적인 고통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애수없는 생명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볼 때, 어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았는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고 분만하기까지 정신적, 육신적인 고통이 컸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남달리 컸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 없었으리라. 우리가 중생 선물로 주신 아기를 통해 '한 영혼의 귀하게'를 더욱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홍 윤 경(청년2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담스러울 일이기도 하다.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 장차 그 계획이 실현될 때 맛있게 될 회일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애써 만들어 놓은 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로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계획 같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부를 하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বেশ 있었다. 그러나 '공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일이기도 하다.

이웃을 대하는 신생활이 정해주는 대로 혹은 교과서가 참고서가 요구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계획 따위를 세우는 일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대학 입학' 자체가 유일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졌다. 공부를 마치고 위해서 노력과 열정은 그만두고라도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엄청난 현실 앞에 압도되어 나는 다른 계획을 세우는 일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 같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면서 나의 내는 점점 작아져서 삶의 조그마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내가 마치 생각할 수도 없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아오면서 나의 마음의 눈은 점점 좁아진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도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쉽게도 아니라 나의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니 말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따라갈 수는 없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는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아예 '계획'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이에게도 좌절하거나 방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다. 나 자신은 내가 걸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우신 대로 한 계획은 나 자신보다 더 큰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분의 계획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계획과 다를 것이다. 때로 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거나 방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짐작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금주에 만난 사람

MK 사역을 아시나요?

선교사 자녀 사역을 위해 방글라데시로 떠난
대학부 김은미 자매

선교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 최전방에서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하는 직접적인 보병의 역할들. 그러나 보병의 역할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후방의 역할들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선교사의 자녀들, 그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교육시킬 교사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먼 타국으로 와 한국인으로 또 그곳 사람도 아닌 혼란을 겪으며 자기 정체성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줄 신앙의 교사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교사자녀(Missionary Kids) 사역이다.

김은미 자매는 작년 98년 방글라데시로 단기 사역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선교사 자녀를 위한 예배에 헌터내셔널 스쿨이 계획되어지고 있고 이곳에 많은 선교생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자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한번 섬김을 해볼까?' 하는 도전과 호기심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결정을 하리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와 갈등이 그곳까지 가게 하기에 너무 많았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함께 단기선교를 다녀왔던 형



제가 MK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또 6개월 후 두번째 겨울 단기사역으로 방글라데시로 다녀왔다. 이번에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 속에 두 개의 소리가 들려왔다. '가자마, 꼭 가야만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내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야,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속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일이잖아. 뭘,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렴!'

주변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새벽기도를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꼈다.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자매의 삶에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자매는 4월 5일 방글라데시로 떠났다. 1년간의 MK사역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험하고 돌아와 것이다. 김은미 자매가 신앙 안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갖고 한인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겠다. (이수영)

심개운데 작은 이야기 진한 커피 한 잔의 열심

♡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 한다. 늦게 늦게 믿기 시작해서 권사님이란 호칭이 어울릴 듯한 나이에도 아직 그저 성도라고 불러 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사랑을 늦게만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주셨다고 하신다. 그래도 예배 시간이 힘들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 커피를 여쭙보았다. "다 처음 들은 말씀인데, 예배 시간에 졸리지는 않습니까?" 대답은 어떻게 줄 수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안 졸 수 있겠지? 교회에 오기 전에 한 잔 꼭 주신단다. 그리고 꼭 진한 커피 한 잔을 하신단다. 설교시간, 그 귀한 시간에 졸고 싶지 않다고, 천근 같은 그 말씀만 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주위에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다고 하신다.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 어떻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인데 ..., 그렇구나. 이런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진한 커피 한 잔의 열심!

교회사적 / 목·장립

●알림

1. 장학현금/오늘 I, II, III, IV, V부에서 드립니다.
2. 세신자 협의회/오늘 교구모임시 각교구별로 있습니다. 세신자들과 인도자들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장년3부 특강/오늘 12:30-13:30 교육관 307호에서 있습니다.
· 주제: 6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 강사: 김재철 목사
4. 만민선교대 대회 모집/7월 연주 가능한 성도들과 기초반 신임대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이연순 집사(3463-0434)

●모임

1. 장로 화요새벽기도회/27일(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화요새벽기도회/26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오늘 15:00, 갈릴리움
4. 교구위원회 월례회/오늘 15:30, 진교관 301호
5. 도시장학회 기도회/29일(목) 18:00, 만나홀(참석: 가이오 회원, 전역장학 생 및 후보자)
6. 실패인전도회 목요기도회/29일(목) 새벽기도회 후, 실패인전도회실
7. 진교회 제4회 월례회/28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나년전도회

1. 바울 4/오늘 15:00, 일마노엘
2. 바울 6/오늘 15:00, 갈릴리움
3. 바울 12/오늘 15:00, 교육관 314호
4. 요한 14/오늘 18:00, 이종목 집사역(831-8988)
5. 예스더11/29일(목), 충현기도원
6. 예스더17/오늘 교구모임후, 교구모임장소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83	김진환	1	바울		593	홍희로	5	청년2부		603	김희진	19	대학부	
584	김국자	1	한나		594	김현진	5	청년2부		604	윤수정	19	대학부	김장미(19)
585	이영일	1	베드로		595	강한홍	5	베드로		605	신희열	1	청년1부	이진규(7)
586	정승희	1	예스더		596	김광배	5	루디아		606	지영록	7	베드로	지유호(7)
587	김희실	1	루디아		597	장국자	10	예스더	천춘자(10)	607	이은희	19	청년1부	양홍희(2)
588	조용무	1	중등부		598	최재경	13	청년1부	전창국(13)	608	김영경	19	청년1부	박희정(2)
589	박영숙	3	청년2부		599	박재자	16	예스더	김금자(16)	609	송만홍	3	요한	
590	전은혜	3	중등부		600	윤영란	19	청년1부		610	유재란	12	바울	
591	유순덕	3	루디아		601	이영수	19	청년1부		611	송언민	12	청년2	
592	강신애	3	고등부		602	이기철	19	청년1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립

영생이 있는 사람들

차 병 준

(목사, 8교구 지도)

조현의 식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교구영성훈련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교구 식구들이 모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1년에 몇 번 안되는 큰 행사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저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디션이나 구역장되는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면 요즘 IMF대라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못온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긴장하던 만민지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영성훈련에 전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절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와 주위회하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막 5:36)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지 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태학 교구님으로 계시는 어느 집사님은 학교일을 뒤로 미루고 영성훈련에 참석하였고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일하면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집사님들도 그 생애와 연결된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함께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장사시경까지 때문에 하루를 먹지 못해 눈이 속 들어간 상태에서 경사가 끝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만 어린이처럼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동참하신 이 소중한 성도님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분을 믿는 영생이 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혼

1. 조동일 군(조연세 씨, 최귀선 씨의 아들, 19교구)과 홍혜선 양(김진만 권사의 딸, 11교구)/27일(화) 13:00, 복지관
2. 이용길 군(이기성 성도, 조양숙 성도의 아들, 19교구)과 이명희 양(이정훈 집사, 김봉재 권사의 딸, 8교구)/5월 1일(토) 12:00, 갈릴리움
3. 송재혁 군(송국현 집사, 성희용 권사의 아들, 19교구)과 김은신 양(김경지 성도, 박국자 성도의 딸)/5월 1일(토) 13:00, 갈릴리움

●별세

1. 신명선 성도(김재우 성도 아내, 신명자 집사 언니, 15교구 흑석1구역)/16일 별세, 19일 장례

●주수 및 전회보 변경

1. 이하영 집사, 민간식 집사/성남 분당구 아람동 511 가산A, 307-2201 (☎) 0342-707-0552
2. 조성훈 집사, 윤준식 집사/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A, 125-1201 (☎) 878-2999

●1999년 5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성도)					찬양 예배 (연수준)	수요일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5	2	손동운	김의철	윤병식	엄필성	김경희	전학래	이명자	김정순
	9	식동숙	송기철	마성진	최대원	정하주	손기철	이상희	남수현
	16	강은진	이훈	노경원	김동용	박종훈	김영일	이정애	라계혜
	23	김종구	남건우	송환장	오정원	최귀곤	유성남	정성혜	맹창숙
	30	이유식	정준희	김인민	차신록	윤정식	엄영림	정정자	박명범

충현 중보의 창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함의 은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게 하소서.

② 학습세례식(오늘)과 성찬식(5월 2일)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사를 감사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르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③ 급변 여름에 실시될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 사역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④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하게 하소서.

⑤ 우리 교회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⑥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신교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⑦ 각 전도지도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⑧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원로목사

김창민

■위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현 김동석 김필수 전영훈 김재철 이순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민식 권성현 서경진 이순학

■장로

정형성 이준경

■원로목사

윤영택 박학용 노봉민

■선교사

이종호 안석렬 김영대

■강도사

박민기 열현일

■원로목사

이두란 최복순

■연도사

정현희 현갑진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민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한영준 박광호 김영숙 김복순 김현식

■교정도사

박양락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명기 송원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김병주 이종대 김윤식 김일순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대안 이석현

■원로목사

유병태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하요셉 강기영

4월 25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온 3중주 인민지평선 안운정 (임마누엘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아름다운 은 땅과
- 우리 기쁨되시는 예수
- 이 믿을 더욱 굳세라

◆3·4부예배

현악 4중주 (할렐루야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주 예수 대문 밖에
- 시온과 같은 교회

◆5부예배

별원 여성중창단 (찬양곡목)

-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 나 속죄함을 받은 후
- 사랑은